

에서!」악대 탭뿔을 얹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외치는 광야의 소리가 있었읍니다. 『임금이여 동생의 아내를 취함은 옳지 않습니다!』▼정치인도 종교인도 아무도 그왕에게 그 잘못을 말해준이 없었읍니다. 그말을 들은헤롯왕은 세례요한을 옥에 가두었읍니다. 그리고 그를 미워하는 간신들과 그의 매혹적 유희에 넘쳐나 그 요한의 목을 잘



資料

在日大韓基督教会總會宣教基本政策(原案)

總會傘下各級集會에서의 검토를 위한

前文

우리教会는 韓民族의 國家의 悲劇이 始作된 今世紀初부터, 祖國을 떠나 日本에 살게된 韓民族속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뜻안에서 이루어졌고, 이 教會는 이 民族과 더불어 걸으며 그 存在를 밝히고 있다.

우리 教會는 同胞과 함께 日本帝國主義의 隸屬에서의 수치를 거기에 解放되는 榮光을 나누면서 그 歷史를 이어왔다. 그 結晶은 반 對의 아픈 歷史를 不是하고, 때로는 수치를 굴욕에 젖은 것이었다 하더라도 教會가 志向하고 나간 動機는 언제나 우리 主에 수 그 리스도의 福音에 있다. 그가 百姓들의 수치를 자기의 것으로 삼고, 人間의 解放을 위하여 成 肉하신 事件에 우리 教會는 그 存在의 根柢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教會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40여년에 宣敎提點을 形成하면서 계속 發展하고 있음은 바로 그 志向하 는바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役 事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 教會의 어제와 오늘 과 내일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感謝를 돌려 마지 않는다.

오늘 이 時點에서 이 教會를 위해 하나님 마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宣敎基本政策을 세 우려고 할때, 우리는 하나님과 同胞 앞에 悔 改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특히 우리 民族이 日 帝支配下에서 解放된 이후 오늘까지 주어진 機 會를 最大로 살리지 못하였을뿐만 아니라, 祖 國을 떠나 이땅에 사는 特殊하고 複雜한 狀 況속에서 歷史의 흐름에 대한 깊은 洞察을 갖 지 못한데 비롯한다. 解放直後 흔히 聖徒들을 모 으며 教會를 再建하는 일에 몰두하는 나머지 變革과 새로운 形成期에 있었던 民族의 高인 을 제 것으로 삼지 못하였다. 教會의 生命은 제 대로의 使命을 감당할 때 살고, 그 使命은 生 命이 불타오를 때에 遂行되는 것이다. 우리는 教會의 生命과 使命의 連結性을 소홀히 여긴 그 부르심을 입은 歷史狀況에 反省한다. 教會가 그 自體保存에 급급할 때 教會는 그 生命을 잃 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教會 의 이러한 傾向으로 인한 現實의 敎勢不振, 青年運動과 教會學校의 쇠퇴의 原因들을 살펴 볼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우리 教會 안 에 痼疾化되어 가는 自體保存의 姿勢로 望미 암아, 同胞들의 生의 領域에서 教會가 疎外당 하고, 民衆을 위해 세움을 받은 教會가 同胞 社會의 苦惱의 核心을 外面한 感이 없지 않

었다. 그리하여 一九六八年 宣敎 60週年을 마 지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으로」라는 주 제 밑에서 교회혁신을 도모하여 나선 것이다. 우리는 지금 主에 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그 原點에 돌아가는 徹底한 悔改를 해야 하 겠다. 이 세상과 萬民을 위해 十字架의 苦難 을 달게 받으신 主님의 뒤를 따름으로 自體 保存과 自己中心의 教會主義를 克服하며, 復活 하신 主님의 能力을 힘입어 派遣된 자리에 달 러가야 하겠다. 그 자리가 오늘 日本에 우리 하여 나그네의 삶을 이어가는 韓民族의 眞正대, 다시 이들과 그 苦難을 함께 나누며 이들의 삶이 福音이 指向하는바와 같이 解放되기 위 하여 싸워야 하겠다.

基本的課題

우리 教會의 宣敎의 使命에는 두가지 課題가 밝혀져야 하며, 두가지 原理의 相關關係에서 成되는 여러가지 課業이 統一的으로 理解되어 야 한다.

첫째, 우리는 復活하신 主에 수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証人이 되라 하신 命令 에 答答하는 教會가 되어야 한다. 이 使命을 完遂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同胞과 散在하 고 있는 모든 구석에 福音의 燈을 밝히야 하 며, 또한 우리 民族이 全의 人間으로 回復되 는 救援에 最大의 關心을 가지는 것이다.

둘째, 우리 教會는 主가 支配하시는 終末論的 인 歷史 가운데 놓여있다. 歷史의 主가 勝利 를 宣告하셨다. 그러나 現實의 歷史는 아직 모 든 惡이 여러가지 모양으로 힘을 부리고 있 는 舞台이기도 하다. 이땅에서 우리 民族이 政 治的, 經濟的, 社會的, 思想的인 抑壓을 받고 있 는 現實도 그 一面인 것이다. 民族의 「삶」의 모든 領域이 이러한 抑壓에서 解放되 는 것은 救援의 現實성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終末論的인 歷史觀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 은 救贖, 그리고 우리 同胞의 人權을 옹호하 고 福祉問題가 福音宣敎에 全의 關係를 가지고 있 다는 理解를 宣敎의 基本姿勢로 삼는다.

이것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生에서 信 仰과 사랑의 行爲의 果實수없는 統一과 調和 의 關係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分離하고 그 어느쪽에 偏重하는 神學은 傾向性을 띤 것 으로 規定하고 正統한다.

一九七一年度 第27回總會는 위의 基本的課題 를 지니고 나아가기 위하여 教會의 세가지 聖 務인 宣敎, 教育, 奉仕에 따라 각각 宣敎, 教 育, 社會의 세 活動部署를 두는 機構改編을 해

왔다. 우리의 宣敎基本政策도 이에 따라 具體 化될이 時急하다.

宣 道

(1) 一九六八年 宣敎60週年을 계기로 試圖된 「아직 福音이 傳達되지 못한 地域에 대한 開 拓宣敎」는 계속 推進되어야 한다.

(2) 日本社會의 都市化에 對應하는 同胞人口의 動態에 立脚한 教會配置와 多樣化되어 가는 社 會生活 가운데 사는 同胞들에게 共同牧會를 試 圖해야 한다.

(3) 人間關係가 疎外되어가는 現代社會에서 더 욱 民族性을 상실해 가는 同胞의 尤대를 이 록하기 위하여 同胞들이 比較的多數集中하고 있 는 中心地에 教會堂을 設置하고 많이 모이게 하는 同時에 그 周邊地에 「집의 教會」(家庭 的 教會)를 編成할 必要가 있다.

(4) 全體敎人들의 組織的인 宣敎訓練과 使命意 識 培養을 통하여 그 機能에 따라 多樣性宣 道(文書·逐戶訪問·産業·病院·學園等)에 參 與하도록 한다.

(5) 위와같은 總動員宣道를 통하여 一九七〇年 代에 最低一萬名信徒의 敎團으로 成長해야 하 며 따라서 各敎會는 支敎會나 「집의 教會」(宣 道所)를 設置하며 總力을 다한다.

教 育

(1) 우리 教會의 敎育理念은 하나님께서 받은 人間의 可能性이 實現되며 恩寵속에 있는 生 을 自覺케하는 過程에 그 기초를 두고 形成 된다. 따라서 이것을 阻害하는 어떠한 抑壓과 束박에서라도 人間을 解放시키는 데 當面의 課 題가 있다.

在日同胞의 경우, 日本社會와 거기서 받은 敎 育으로 말미암아 상실한 民族의 自主性(自己 同一性)과 人間의 主体性의 回復이 緊急한課 題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의 福音이 우리 狀況 속에서는 이런 自己回復의 힘이 된다.

(2) 우리의 敎育理念에 立脚한 カリキュ럼을 세 우되, 하나님의 恩寵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人 間的 自由와 解放의 福音을 中心에 두고, 民 族의 歷史와 文化敎育을 그 테두리로 삼는다. 그리하여 自己를 發見하고 하나님과 이웃과 의 關係에서 올바른 자리에 나아갈수 있게 한 다.

(3) 敎會敎育을 통해 信徒의 生涯敎育의 基礎 를 確立해야 하며, 礼拝一邊倒의 集會를 벗어 나 敎會를 좀더 넓은 敎育의 場으로 삼아야 한다. 各敎會는 여러 敎育의事業의 企画·開發 에 힘써야 한다.

(4) 敎會의 聖役을 담당하는 指導者(敎役者와 信徒)의 養成과 再敎育을 위하여 指導者養成 基金을 만들며, 全敎會는 各種指導者를 育成選 拔하는데 힘써야 한다.

究하며 保衛事業을 장려하면서 敎育을 통한 福 音宣道에도 이바지할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 教會의 主體性確立은 單獨孤立을 宣言 하는 것이 아니다. 主의 敎會는 普遍的인 意味 에서, 거룩한 公會를 告白한이니, 우리는 必 然的으로 世界敎會의 한 지체가 되는 것이다. 過去 우리 敎會의 歷史를 살펴볼 때 母國敎會가 우리를 위해 일군을 派遣했고, 캐나다 長老敎 會와의 오랜 宣敎關係도 우리 敎會의 世界敎 會의 協力關係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時點 에 있어서 過去의 宣敎關係를 再調整하고 새 로이 맺어지는 宣敎關係는 二十世紀의 基督 教運動이 가져온 豐盛한 成果를 反映해야 한 다. 오늘날의 世界宣敎는 敎會의 相互關係를 通 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同參與으로 수 행 된다. 宣敎를 위한 敎會의 相互關係는 宣敎地 에 奉인 敎會의 主體性을 서로 尊重함으로 確 立된다. 十九世紀 派遣敎會가 主權하던 宣敎 關係는 止揚되고 보편을 받은 人材나 財源이 被派遣敎會에 統合되어야 한다. 우리 敎會가 이 런 자리를 차지한 敎會로 成長했음을 하나님 게 감사하는 同時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主 體的責任을 再確認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無 制限으로 姊妹敎會의 人材나 財源에 依存하 지 않는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緊急한 領 域에서의 宣敎協力을 期待하는 것이다.

우리는 亞細아·中亞細亞·南亞細亞 一 致 와 福音을 그 奉인 地域에서 증거하는 課 題로 받고 있다. 우리 敎會가 日本 NCC(日本 基督教協議會)·CCA(亞細亞基督教協議會)·W A RC(世界改革敎會連盟)·WCC(世界敎會協議會) 에 加盟하여 오늘날의 敎會의 生命과 使命을 나 누고 있음은 바로 이것을 意味한다. 우리는 宣 敎의 相互關係를 確認함으로 宣敎協力을 받는 敎會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바의 하 나님의 선물을 世界敎會와 나누는 敎會로 成 長해야 한다. 우리가 一九七三年初에 J N A C (日·北美地域宣敎協力委員會, 日本基督教團·北美 · 캐나다敎會가 會員)에 加入한은 다른 地域 에 있는 敎會와 恩賜를 서로 나누며 같은 경 험을 갖고 있는 敎會와의 共同使命을 감당할 것 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奉 仕

(1) 그리스도의 生涯와 그의 救贖을 自己否定 과 犧牲奉仕(사랑)을 媒介로 이룩한 聖業이 며, 그리스도인은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 들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경우에서 人 間을 完全하게 回復시키기 위한 奉仕의 努力 이기도 하다. 在日60萬同胞가 사는 오늘날의 日 本社會에서의 敎會의 大局的인 奉仕活動은 確 立되고 있는 同胞들의 基本的人權의 回復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敎會는 各方 面에서의 社會活動을 推進해야 한다. 社會正義 의 확립을 위한 우리의 活動은 福音을 증거 하는 具體的인 行動으로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 다.

(2) KCC(大阪韓國基督教敎會館)은 우리 敎會 가 모체하고 있는 社會奉仕의 한 상징이다. 따 라서 이것은 大阪生野地區에 限定되는 運動 이 아니고 앞으로 各地域에서 그와같은 運動 이 推進되어야 한다. 이 運動은 在日韓民族의 基本人權獲得과 住民의 福利向上과 少數者의 權 益옹호를 위한 「善한 사마리아인」의 奉仕活 動을 그 趣旨로 삼는다.

(3) 祖國統一은 우리 五千萬同胞의 悲願이다. 우리 敎會는 祖國을 떠나있는 在日同胞를 섬 기는 立場에서 있었으며, 海外에 사는 여권을 살 리 가면서 祖國의 南北統一과 和睦을 이룩하 는 데 이바지할 責任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 서 自由와 正義가 관철된 民主政權이 統一된 祖國에 樹立되기 위한 祈禱와 온갖 奉仕의 努 力을 다한다.

(4) 우리 敎會는 60여萬同胞가 日本에 居住하 게된 事實을 日本의 近代化過程에서 되어진 아 시아侵略의 不幸스런 歷史의 因果關係에서 그 政治的, 經濟的 要因과 結果를 밝힌다. 그러나 歷史를 다만 因果關係로만 解釋하지 않고 하 나님이 捫理하시는 舞台로 理解하기 때문에, 이땅에서의 現存을 感謝하며 우리의 存在가 日 本社會로 하여금 主가 뜻하시는 歷史方向으로 止揚케 하는 役割까지 自負하는 것이다. 그리 므로 우리 敎會의 人間과 歷史를 위한 子言 者的 活動이나 祭司的 奉仕活動이 兩民族의 自 主的 親善關係를 맺는데 이바지 될것을 確信 한다.

(5) 우리 敎會는 在日同胞의 既存諸團體와의 協 同的 活動을 모색하면서 社會奉仕와 民族的 유 대 강화를 이룩하려 한다.

自立과 協力關係

우리 敎會는 이땅에서 오늘날 役事하시는 主 에 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答答하여 나선 主 의 弟子의 무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使命을 감당하며, 위의 모든課題를 지 니고 그 目的하는바를 이룩하기위하여서는 우 리 敎會의 主體性確立은 單獨孤立을 宣言 하는 것이 아니다. 主의 敎會는 普遍的인 意味 에서, 거룩한 公會를 告白한이니, 우리는 必 然的으로 世界敎會의 한 지체가 되는 것이다. 過去 우리 敎會의 歷史를 살펴볼 때 母國敎會가 우리를 위해 일군을 派遣했고, 캐나다 長老敎 會와의 오랜 宣敎關係도 우리 敎會의 世界敎 會의 協力關係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時點 에 있어서 過去의 宣敎關係를 再調整하고 새 로이 맺어지는 宣敎關係는 二十世紀의 基督 教運動이 가져온 豐盛한 成果를 反映해야 한 다. 오늘날의 世界宣敎는 敎會의 相互關係를 通 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同參與으로 수 행 된다. 宣敎를 위한 敎會의 相互關係는 宣敎地 에 奉인 敎會의 主體性을 서로 尊重함으로 確 立된다. 十九世紀 派遣敎會가 主權하던 宣敎 關係는 止揚되고 보편을 받은 人材나 財源이 被派遣敎會에 統合되어야 한다. 우리 敎會가 이 런 자리를 차지한 敎會로 成長했음을 하나님 게 감사하는 同時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主 體的責任을 再確認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無 制限으로 姊妹敎會의 人材나 財源에 依存하 지 않는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緊急한 領 域에서의 宣敎協力을 期待하는 것이다.

우리는 亞細아·中亞細亞·南亞細亞 一 致 와 福音을 그 奉인 地域에서 증거하는 課 題로 받고 있다. 우리 敎會가 日本 NCC(日本 基督教協議會)·CCA(亞細亞基督教協議會)·W A RC(世界改革敎會連盟)·WCC(世界敎會協議會) 에 加盟하여 오늘날의 敎會의 生命과 使命을 나 누고 있음은 바로 이것을 意味한다. 우리는 宣 敎의 相互關係를 確認함으로 宣敎協力을 받는 敎會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바의 하 나님의 선물을 世界敎會와 나누는 敎會로 成 長해야 한다. 우리가 一九七三年初에 J N A C (日·北美地域宣敎協力委員會, 日本基督教團·北美 · 캐나다敎會가 會員)에 加入한은 다른 地域 에 있는 敎會와 恩賜를 서로 나누며 같은 경 험을 갖고 있는 敎會와의 共同使命을 감당할 것 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結 論

資料

在日大韓基督教會總會宣教基本政策

(原案)

前文

在日大韓基督教會總會(以下「總會」と略称する)は、韓民族の国家的悲劇が始まった今世紀初頭以来、祖国を離れ日本に居住するに至った同胞の中にあって、共にいまだ主なる神の御旨により形成された教会である。同時に「總會」は、民と共なる歩みの中で、その存在を明らかにしてきた。

「總會」は、同胞と共に日本帝国主義の隷属下における恥辱と、そこから解放された栄光を分かちあう中に、その歴史を積みかさねてきた。勿論、その歩みは必ずしもすばらしい歩みばかりではなく、時には辱めと屈辱のそれであった。しかし、それにもかかわらず、「總會」が志向し、また前進せんとした動機は、いつてあれ、われ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の福音にあったのである。なぜならば、まさにこの主が、民の辱めを御自身のそれとして身に引き受けられ、人間の解放のために受肉されたのであり、「總會」はこの出来事に己の存在根拠を置くからである。

今日「總會」が困難な状況下にあつて40をこえる宣教の拠点形成し、日々成長しているのは、まさに「總會」が志向するところを成しとげて下さる神の恩寵の御業のゆえなのである。それゆえに、われわれが「總會」の過去と現在と未来を思う時、何よりも先ず、われらの主なる神に感謝せずにはおれないのである。

けれども、今この時点におき「總會」の宣教の業へと召しを受けたわれわれが、その宣教基本政策を樹立せんとするにあつて、われわれは先ず、主なる神と同胞の前に赦しを乞ねねばならないのである。ことに、わが民族が「日帝」支配の下から解放されて以後、今日に至るまで、われわれはわれわれに与えられた機会を最大限に生かして歩んでこなかったのみならず、祖国を離れ、この日本の地に生きている特殊、かつ複雑な状況のもとにあつて、われわれは歴史の流れに対する深い洞察を持ちえなかったのである。

解放直後、各地に散在する信徒たちを集め、教会を再建する業に没頭するあまり、変革と新しい形成をなすべき時期にあつた民族の苦悩を、己れのそれとして担うことをしなかつたのである。

教会の使命は、教会固有の使命を果そうとする時に生きたものとなり、そしてその使命は生命が燃焼する時に遂行されるのである。われわれは、こうした教会の「生命」と「使命」の関連性をいかにしろにしてきた。「總會」の姿を自らのうちにいださねばならない。召しを受けた歴史状況に正しく応答できず、自己保存に汲汲となる時、教会はその生命を失っていくのである。「總會」の中にこうした点に起因する教勢不振、青年運動と教会学校の衰退等の現実をわれわれは見るべきである。更にまた、われわれの教会にあるこうした病的自己保存の姿勢のゆえに、同胞たちの生の領域から教会は疎外されてし

まい、民衆のため建てられた教会が、同胞社会の苦悩の中心から目をそらして来たことも事実であった。それ故に、一九六八年宣教六〇周年をむかえて「キリストに従つてこの世へ」という主題のもとに教会革新をはかつてきたのである。

われわれは今、主イエス・キリストが召したもうその原点に立ち帰らんがために、徹底した悔い改めをなさねばならない。そして、この世界と全人類のために十字架の苦難を甘受したもう主イエスのみあとに従うことにより、自己保存的、自己中心的教会主義を克服しつつ、復活の主の力を身におび、遣された場へとかけ参じていかねばならない。そして、その遣された場が、今日日本に流浪し、旅人としての生を日々生きている同胞の中であるならば、われわれは今一度この民族と苦難を分かちあひ、その生が福音のさしめすところの解放を得るために戦わねばならないのである。

基本的課題

「總會」の宣教の使命には、二つの課題がある。また、二つの原理の相関関係により形成されるさまざまな実践的課題が、統一的に理解されねばならない。

第一、「總會」は復活の主イエス・キリストが語られたところの「地の果てにまで行きわが証人とあれ」との命令に回答する教会にならねばならない。この使命を正しく遂行するために、われわれは、わが同胞の散在している隅々にまで福音の光をかがけていかねばならない。同時に、われわれは、わが民族がまつた人間として生きる救いの業に、最大の関心を払わねばならない。

第二、「總會」は、神が支配したもう終末論的歴史の中に置かれていた。しかし、この現実の歴史は、いまだにあらゆる悪がさまざまな形態を取つてその力をふるっている舞台でもある。この日本社会にあつてわが民族が、政治的・経済的・社会的・思想的抑圧を受けている現実もその一面であるといえる。そして、そこでの救いの現実とは、民族の「生」における全領域が、こうした抑圧から解放されることでもある。

ここからわれわれは、上述のような終末論的歴史観に立つてキリストによる救い、わが同胞の人權擁護と福祉問題とが、福音宣教の業と全的関係を持つてくるのだと理解を、われわれの「總會」における宣教基本政策の基本的姿勢としてとるものである。このことはまた、キリスト者の生のあり方におき、信仰と愛による行ないと分離できない統一と調和の関係をあらわし出るのである。われわれは、この両者を切り離し、その一方だけを強調しようとする神学は、傾向性を帯びた神学として警戒せざるをえないのである。一九七一年度第27回總會は、上述のような基本的課題を担つて前進せんがために、「總會」の三つの職務である「伝道」「教育」「奉仕」に立脚し、それぞれ「伝道」「教育」「社会」の三大活動部門を設置する機構改革を行なつた。このたびのこ

伝道

(1)一九六八年宣教60周年を契機に試みられた「福音が宣べ伝えられていない地域への開拓伝道」は、引き続き推進されねばならない。

(2)日本社会の都市化に伴う同胞人口の動態に立脚した教会配置と、多様化されていく社会生活の中にある同胞たちに対する共同牧会を試みる必要がある。

(3)人間関係が疎遠になっていく現代社会にあつて民族性をますます喪失しつつある同胞の結びつきを強固にするため、同胞が比較的多く集中して居住する地域の中心に教会堂を建て、同胞を多く集めることと同時に、その周辺地域に「家の教会」を形成する必要がある。

(4)信徒全体に、宣教のための組織的訓練と使命感を高めることを通じて、その機能に応じ多様な宣教(文書・戸別訪問・産業・病院・学園等における)に参与させるようにすること。

(5)以上のことと信徒全員の動きを通して、一九七〇年代には最少限一万人の信徒の教会へと成長して行かねばならない。それ故、各個教会は支部教会あるいは家の教会(伝道所)を設置することに全力をあげる。

教育

(1)「總會」の教育理念は、主なる神から附与された人間の可能性が実現され、恩寵の下にある生を自覚させるその過程に基礎を置き形成されるものである。従つてこれを阻止するいかなる抑圧形態であれ東洋状況であれ、われわれには人間解放の業のゆえに、戦いの課題となるのである。「在日同胞」の場合日本社会とそこにおき受ける教育のゆえに失われてしまった民族の自主性(「自己同一性」と、人間としての主体性の回復が、われわれの緊急な課題になるというところである。キリストの福音には、われわれの置かれた状況の中で、こうした自己回復をなさしめるかがあるのだ。

(2)こうした教育理念に立脚したカリキュラムを作り、神の恵みとキリストの救いによる人間の真の自由と解放の福音を中心とす。民族の歴史と文化の教育を、その枠として形成する。かくして、まことの自由を発見し、神と隣人との関係において正しく自己自身の場へと赴き行くことが可能となるのである。

(3)教会教育を通して、信徒の生涯教育の基礎を確立せねばならず、同時に礼拝・一週間の集会を脱し、教会をより広い教育の場として考えねばならない。それゆえ、各個教会は、さまざまな教育事業の企画開発に力を注がねばならない。

(4)教会における職務を担う指導者(教職者と信徒)の養成と再教育のため、指導者養成基金を作り、全教会がその育成の業に力を注ぐ必要がある。

(5)「總會」は、既成民族学園との関係を各方面において樹立することと併せて、直営の学園新設を研究し、保育事業を奨励しつつ、教育を通しての福音

宣教にもあつておしする必要がある。

奉仕

(1)キリストの生涯とその救いは、自己否定と犠牲的奉仕を媒介として成就された聖なる業であり、キリスト者はその主のみあとに従ひまづる群衆である。キリストの愛は、あらゆる場合において人間を完全に回復せんがためになす奉仕の努力でもあるといえよう。在日60万余の同胞たちが居住する今日の日本社会において「總會」の先ずすべき奉仕活動は、抑圧されている同胞たちの基本的人權の回復の業として、あらわれねばならない。

だからわれわれは、各方面において、社会活動を推進せねばならない。社会正義の確立のためになすわれわれの活動は、福音を証しする具体的行動と関連づけられねばならない。

(2)KCC(大韓韓国基督教會)は、「總會」が模索している社会奉仕のひとつの象徴である。それ故に、これは大阪生野地区に限定される運動ではなく今後各地域において同じようになされるべき運動である。この運動は「在日」韓民族の基本的人權の獲得と、住民の福祉向上と、少数者の權益擁護のため「善きサマリヤ人」としての奉仕活動を、その趣旨とするものである。

(3)祖国統一、われわれ五千万同胞の悲願である。「總會」は、祖国を離れて生きる「在日同胞」たちに仕えるべき立場にあると共に、海外に住むという与件を生かして、祖国の南北統一と和解をなしとげるために何らかの貢献をすべき責任を担っている。それゆえに、自由と正義が貫徹された民主政權が、統一された祖国に樹立されんがための祈りとあらゆる奉仕の努力を注ぎ出すものである。

(4)「總會」は、61万同胞が、日本に居住するに至つた事実に関し、日本の近代化の過程におき、くりひろげられてきたアジア侵略という不幸な歴史の因果関係の中にいて、その政治的・経済的要因と結果を明らかにせねばならぬ。だが、歴史を単に因果関係としてだけ解釈するのはなく、神が御業をなさされる舞台として、理解するものである。だからこそ、この地に生きることを感謝しつつ、われわれの存在が、日本社会をして、主なる神の望みたまう歴史の方向へと止揚させていく役割をさへええられていることを誇りとするのである。そこにおき「總會」は、人間と歴史に対する諸的活動、祭司的活動が、両民族の自主的な親善関係を結ぶにあたり、貢献するものをもつていえるのである。

(5)「總會」は、在日同胞の既存諸団体との共同の活動を模索する中で、社会的奉仕と、民族的紐帯の強化につとめるものである。

自立と協力関係

「總會」は、日本社会におき、今なお働きだもう主イエス・キリストの召しにこたへるべき主の弟子の群衆である。それ故に、われわれが、自分に与えられた使命を遂行し、上に述べた全ての課題を担いその目的とするところを成就するためには、「總會」の主體的決断とその姿勢が先ず確立されねばならない。これをなしとげるために、われわれは、われわれの

人材とあらゆる資源を主の祭壇にささげねばならない。

「總會」が、主体性を確立するというのは、単独孤立を宣言するということではない。キリストの教会は、普遍的意味における「聖なる公会」を告白する群衆であるから、われわれは必然的に、世界教会の一族に連なるわけなのである。

「總會」の今日に至るまでの歴史をふり返る時に、母国教会が、われわれのために働き人を派遣してくれ、またカナダ長老教会との長い宣教関係も、「總會」の世界教会との協力を物語るものである。けれども、この時点におき、過去の宣教関係を整理し新たに結ばれるところの、宣教関係が、20世紀のエキュメニカル運動がもたらした豊かな成果を反映映させねばならない。

現代の世界宣教は、教会の相互関係を通じて、神の御業に参与することにより遂行される。宣教の目的の教会の相互関係は、宣教地に置かれた教会の主体性を互いに尊重しあうことを通じて確立される。19世紀の派遣教会が主導した宣教関係は止揚され、遣された人材や資源が、派遣される教会におき統合されねばならない。

「總會」が、こうした場をもつ教会へと成長したことを神に感謝すると共に、われわれが、帯びている主體的責任を再確認せねばならない。また、われわれは、無制限に姉妹教会の人材と資源に依存することとはしない。むしろ、われわれが担い切れぬ困難なまた、緊急を要する領域における宣教協力を期待しているのである。

われわれは、エキュメニカル運動を、教会の一致と、福音をその置かれた地域において証しして行く課題としてうけとめる。「總會」が、日本NCC(キリスト教協議会)・CCA(アジア・キリスト教協議会)・WARC(世界改革教会連盟)・WCC(世界教会会議)に加盟し、今日の教会の生命と使命を分かちあつていくのは、まさにこのことを意味する。われわれは、宣教の相互関係を確立することにより、宣教協力を受ける教会にとどまるのではなく、われわれ自身が、その受けし神の賜物を、世界教会と共有しあつて行く教会へと成長せねばならない。

われわれが、一九七三年初めにJNAC(日本・北米両地域宣教協力委員会)——日本キリスト教団・北米教会・カナダ諸教会が会員——に加盟したのは、他の地域にある教会と、神の恵みを互いに分かちあいつつ、同一の経験をもつ教会との共同の使命を担つていくべき道を模索せんがためであった。

結論

神の宣教は、聖霊の働きにより実を結ぶに至る。われわれが、どのような政策を樹立するとしても、それが聖霊の器として用いられることなくば、何の意味もない。それ故に、ただこの時点では、三位一体の神の聖なる御旨が、われわれの中に豊かに成就されていくことを祈りつつ、各々受けしところに従つて、聖霊の大きな恵みとその経験を、喜びをもつて証しして行かれる群衆として成長することを祈りひたすら、主に心と体とをささげたく思うものである。マラナ・タ(主よ、来たりませ)ノ